받은 구원을 닳도록 활용하는 재미

(신명기 24:6~22)

6.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8.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9.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받은 구원을 닳도록 활용하는 재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받은 구원을 닳도록 활용하는 재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은 마르고 닳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도록 우리나라 만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받은 구원은 동해물과 백두산보다도 더 생명이 길어서 더 마르지 않고 더 닳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다 쓰려고 하면서 그 모든 재능을 100배로 늘려도 등가가 될 수 없는 대단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구원은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꼭 죽은 뒤에만 구원의 효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가 '받은 구원을 활용하며 재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보라'는 얘깁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도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묘사적 방법인데, 살려두시는 이유에 대한 다른 묘사는 '구원을 받았으면 매사에 재미를 느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재미'라는 말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처럼 아기자기한 즐거움들이 쌓여서 삶이 즐거움

으로 충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재미를 못 느끼면 결국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우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으로, 구원 받았음을 죽은 뒤에야 누리려고 창고에 넣어두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활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 안에 미래가 있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건이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으면 지금 받은 그 구원 속에 나의 미래도 있는 것이지요. 미래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시간을 느끼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 내 위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위를 올려다보는 행위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미래의 시점으로 미루거나 창고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지금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행위규범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22절까지 보면 두 번씩이나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시키십니다. 18절과 2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된 선민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는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는 선민들에게 단 하나의 조항도 예외 없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구원을 마음에 기억해 내고,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금 새롭게 받아들일 때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율법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이 일상생활에서 그 행위가 선민다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행위 전에 마음속에서 ‘내가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선민다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회상한다.’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이 언제나 지금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율법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은 인류애의 표현이라거나 박애주의, 만민평등사상 등에 의해서 나타난 이타적 행위이거나, 또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행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사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근거한 행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모든 행위에 앞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기억하여 오늘의 사건으로 활용하면서 행위를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 행위 자체에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라는 말이 단순히 ‘소설이나 영화가 재미있다’는 뜻으로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삶의 형편을 물어볼 때도 ‘삶이 재미있다’고 한다면 ‘삶의 형편

이 즐겁게 잘 진행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선민은 하나의 행위를 할 때에도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구원이 지금의 사건으로 기억되면서 나오는 행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도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회상하며 행위하며 재미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재미있고 기쁨으로 느껴져야만 합니다.
명령을 주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은, 결국 십자가 생활화의 구약 성경적 예표입니다. 모든 행위의 순간에 구원의 사건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 사건에 십자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지금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내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었던 것이 죄이고 간음입니다.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 한 행동이 또한 범죄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또한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이 생지옥으로부터 탈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 환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환경이 되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움직여 갈 때마다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즐겁고 재미있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행위나 말에 앞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못 박혀 죽어계시는데 그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동안의 세상 가치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의 결과로서 내 삶이 지옥의 열매들로 가득 찬 상태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통해 애쓰지 않아도 죽게 되고, 마음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속도로 부활과 승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하늘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타고 뜻 안에서 내려오면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의 이 행동들이 재미있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말할 때마다 나 스스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요3: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 재미를 우리만 아는 것이므로 이 재미를 느껴야만 합니다. 행동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재미있을 수는 있겠지만 행동 자체가 재미있을 수 있겠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구원을 활용하면 행동자체가 재미있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오늘 모세가 명령한 이 본문에 적용을 시켜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규범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딱딱한 느낌의 행위들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붙임으로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항상

재미를 느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어서 이 규범대로 더 하고 싶어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받은 구원을 창고에 넣어두지 않고 활용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몸을 통해 행동과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반드시 우리의 행위 속에는 구원 받은 자의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그 유전자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전자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빛의 속도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가진 자이고, 더욱 더 많이 가질 자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벌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지낼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구원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 내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 갖고 있는데!'라는 자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구체적으로 동창회에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는 동창이든지, 남편이 장관이 된 동창이든지, 자식이 서울 대학을 들어간 동창들을 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언제 나에게도 '돈 많이 벌고 남편이 잘되고 아들딸이 형통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고 남편이 장관이 되고 아들이 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것들을 간증거리로 삼았는데 이것은 구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음의 유전자가 나타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유전자에는 하나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이 장관되고 돈 많이 주시고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졌음이 자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돈 번 것이 부럽지 않고, 자식이 서울대 들어간 것도 부럽지 않고, 남편이 장관인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 남편과 자식이 별 볼일 없고 돈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는 자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자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자랑한다면 이것은 돈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랑은 하나님을 가졌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의 극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활용하면서 행동 속에 나타나는 유전자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따라가는 유전자는, 절대로 이 땅에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재미로 느끼는 유전자인데 희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며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행동을 하는데, 그러나 나는 남이 볼 때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 속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

심에 호소하는 규범의 내용들 같지만 실제로는 다 재미를 누리는 내용들입니다.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잡음이니라'라고 합니다. 돈을 꾸어 주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담보물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채무자도 맷돌이 있어야 곡식을 갈아서 먹을 수 있으니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라는 말씀은 그 자체로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저 사람이 돈을 언제 갚을까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절박한 물건을 담보로 잡아야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어서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나를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나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갖게 되자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을 꾸어준 사람에게 다급함을 느끼지 않는 재미를 느낍니다. 겉으로는 '돈 갚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그래 형편 되는 대로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맷돌을 잡았던 나를 보고 맷돌을 가져갈 생각은커녕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유인한다.'는 것은 광의적 해석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재산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판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원을 활용함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돈으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돈의 유익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사장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 거래처 직원에게도 잘 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내 돈줄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구속하지 못하게 될 때에 재미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장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사장이 내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보여야 될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없애니 잘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사장을 만나도 즐거워지는데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떳떳하고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힘과 자신이 생기고 감동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진리를 이야기하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과 양심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라고 하십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윽박지르고 창피를 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세에 대한 의도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미리암이 자기의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재미가 있어집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행동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음에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벌 받을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를 이루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투자하면 반드시 십억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지로 십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데 이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말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구원 받은 유전자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보니, 마지막 유전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필요만 강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관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활용하고 나니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재미있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대화할 때 내가 구원을 활용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없게 되고,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엑스레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가 재미있습니다. 구원을 활용하면 모든 행위가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만드신 서클을 빛의 속도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과 말 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 세상 가치에 매여서 먹고 싶어 하고 갖고 싶고 이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싶어 하던 헐떡거리던 그런 나는 죽었다. 그렇게 헐떡이며 내가 싸놓은 죄의 결과들의 지옥의 열매로부터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내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을 가지라고 초청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 벌게 하실 때까지 자랑을 유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출세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졌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땅에서는 갖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이 자랑이 습관이 되고 이 자랑이 생활화가 되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없기에 떳떳하고 자신 있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필요가 느껴지고 보이므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딱딱한 규범처럼 보이는 모든 말씀들은 '제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선민들

은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구원을 활용하는 재미를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행위에서 나타나는 재미 충만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구원 사건을 마르고 닳도록 활용함으로서 거룩한 재미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